

# 위기경영 시나리오 마련 시급하다!

## SERI, 체질개선 서둘러야 생존 ... SK·LG·한화 성장동력 확보 총력

삼성경제연구소(소장 정기영)가 2012년 국내경제 성장률을 3.6%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으로 중장기적으로 강한 체질의 경제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국내기업들도 불확실성에 대비해 위기경영 시나리오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해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SK그룹은 정유, 통신 등 주력사업의 성장이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보고 분사 등 과감한 체질 개선으로 활로를 찾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2011년 들어 정유(SK에너지)와 화학(SK종합화학) 사업을 분사했고, SK텔레콤은 10월1일자로 플랫폼 사업부를 분사할 계획이다.

SK는 분할을 통한 자율·책임경영 문화의 확산이 성장 정체를 극복하는 탈출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는 2007-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환율, 유가, 금리 등이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서 업종별로 1-2개월의 단기 경영계획을 수립해 최적의 대응을 해나가고 있다.

LG 역시 2012년 해외시장의 불확실한 경영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탄력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강조하고 나섰다.

2012년에는 유럽 및 미국 경기침체에 금융 불안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고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R&D 투자를 적극 확대할 방침이다.

포스코는 2011년 하반기에 어려웠던 철강 경기가 2012년 초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최근 유럽의 재정위기 등으로 불투명한 경영환경이 지속되면 경제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포스코는 원료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극한적인 원가절감을 시행하는 등 이미 비상경영에 돌입했으며, 2012년에도 비상경영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한화그룹은 한화금융네트워크를 주축함으로써 유럽의 재정위기에 따른 환율 급등 등 금융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한화는 2011년 목표했던 신규투자 기조를 변함없이 유지하는 한편 계열사 대표들에게 경기침체에 따른 영업실적 관리를 주문했다.

롯데그룹도 국내와 해외를 막론하고 2012년 경제성장률이 2011년 수준을 밑돌 것으로 예상하고 경제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2012년에도 내실 위주의 신중한 경영기조를 유지하면서 핵심사업을 강화하면서 해외투자는 지속할 방침이다.

CJ그룹은 제일제당의 설탕 사업에서 비상경영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원당 국제가격이 급등했지만 국내 설탕 가격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못한 상태이며, 환율이 급상승해 원료 수입부담이 커지고, 기본관세율이 35%에서 5%로 낮아지게 되면 삼중고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CJ그룹은 최근 대한통운 인수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고 당분간 효과적인 인수후통합(PMI) 작업에 주력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9/22>